

월요광장



이승권  
조선대 아시아문화교류사업단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위한 전당의 역할

텐츠를 바라보는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소회는 불안하기 그지없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맡은 바 일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설득력 있는 콘텐츠 제작이 쉽지 않다고 한다. 개관을 10개월 넘겨둔 시점에서 광주 콘텐츠의 개관을 늦출 수 없다면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를 중심으로 개관 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시아는 지구상의 어떤 지역보다도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갖는다. 아시아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다. 따라서 아시아의 문화 다양성을 수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화사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당의 콘텐츠 전문가들이 아시아의 문화원형을 파악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지구촌 시대에 아시아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이 국수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아시아문화전당이 서구 콘텐츠의 경연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아시아의 문화원형을 콘텐츠로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전당이 그러한 노력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아시아의

가치를 찾는 노력이 아시아문화전당의 존재 이유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신의 문화를 사랑하고 자신의 문화 자산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온 프랑스의 자세는 본받을 만하다. 문화에 대한 프랑스의 자존심은 오만에 가득하다고 한다. 그런 프랑스의 문화 우월주의에는 다양한 배경이 있다. 그 중의 하나는 데카르트를 비롯한 프랑스 지식인의 기여다.

데카르트의 명제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프랑스 사회를 사고하고 논쟁하는 구조로 이끈 것은 분명하다. 드골은 "위대하지 않으면 프랑스가 아니다"고 말했다. '위대하지 않은 것은 프랑스가 아니다.'고 믿는 프랑스인의 생각을 확신으로 바꾸어 준 것이 바로 프랑스의 지식인들이다.

모든 분야에서 '위대함'을 추구하는 프랑스인의 지적 호기심은 프랑스 사회의 근간이 되었고, 이러한 전통은 모든 분야에 뿌리를 내렸다. 마침내, 합리적 이성을 근간으로 하는 프랑스의 주지주의 정신은 프랑스 문화의 특징이 되었다.

또 다른 프랑스 문화의 특징은 다양성이다. 프랑스는 문화 다양성이 프랑스 사

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과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도 문화가 경제 논리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중요한 것은 프랑스인이 생각하는 다양성이 다른 분야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프랑스인은 자기의 생각이 존중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프랑스인이 말하는 톨레랑스(tolerance-관용) 정신이다. 문화 다양성과 톨레랑스 정신은 프랑스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가치다. 이러한 정신이 아시아문화전당을 완성하고 발전시켜야 할 광주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

아시아문화전당이 진정으로 '아시아 문화 창조자의 집'이 되고자 한다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경우로는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실행 여부가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시스템을 실행하는 과정 자체가 문화도시 광주에 기여하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아시아의 가치를 구현할 콘텐츠를 찾고, 아시아의 문화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톨레랑스 정신을 발휘할 시점이다.

기고



정찬용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 위원장

가지않은 길, 가야할 길 광주자동차밸리 출범식을 맞으며

약'이 이미 이뤄진 셈이었다. "한번도 가지않은 길을 가려고 한다"는 기아차노조위원장의 말에서는 강한 결기마저 느껴졌다. 순간 학생시절 누구나 한번쯤 외웠을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않은 길'이라는 시가 생각났다. 시인은 낫날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한 길을 그대로 두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50년의 현대사는 두갈래 길 모두를 바쁘게 뛰어왔다. 으레껏 광주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 그 길은 영광은 있었으되 힘들고 지치고 고된 길이었다.

2014년 대한민국은 이제 또 다른 길을 선택해야하는 기로에 섰다. 지금까지의 두갈래 길은 아니다. 모든 낡은 생각과 제도의 틀을 바꿔야 내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선진적 인 복지사회로 가는 길은 멀어진다. 최근 몇 년 사이 정치사회적인 여러 사건사고들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다.

경제부만만 놓고 보면 해답은 나와 있다. '공중재' 좋은 환경은 만드는 일이다.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은 퇴직이 되는 노사갈등과 고임금구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가 노사민정대협약을 이룩내려고 한다.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야하는 길은 이 외길이다. 쉽지 않은 길이다. 서로 신뢰가 있어야 하고, 일정 부분씩 양보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목적은 체제의 틀에 빠진 제조업을 되살려서 선진복지사회의 진입이다.

광주가 택한 것은 광주와 인연이 많은 자동차산업이다. 협동조합이든 어떤 형태가 됐든 제3의 지대에 연봉 3000~4000만원대의 청년들이 자동차생산에 참여하게 하는 일이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뿌듯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기업은 노사문제에서 상당부분 자유스러워진다.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지 않아도 될 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지금 대기업들은 750조가 넘는 현금자산을 쌓아두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만 이를 수 있다면 자연스레 국내투자로 유도할 수 있다.

광주 기아차는 현재 62만대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다. 추가로 30만대 규모의 공장을 유치하면 연간 100만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자동차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마침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 도시'를 공약했다. 이미 진곡산단과 빛고을 산단에는 자동차전용부품단지 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광주는 기업의 국내투자를 위해 '명갈레로'에 가까운 원형지 제공도 고민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인재개발원장으로 있을 때 다. 정몽구회장이 "해외공장 한번 돌아보시지요"하는 것이었다. 세계 곳곳에 있는 현대기아차 공장 7군데를 돌아봤다. 돌아오니 정회장은 "뭘 느꼈나"고 물었다. 두 가지를 대답한 기억이 난다. 하나는 노동조합이 사측에 결코 적대적이지 않더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고 답했다. 정회장은 "제대로 잘보셨다"고 했다.

사실이 그랬다. 하나의 사례로 미국 엘라바마 현대차같은 경우는 연간 1달리에 300만평에 가까운 땅을 제공받았다.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철도까지 놔줬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달리는 미국 이야기다. 중국 베이징은 현대차를 유치하려고 북경시내 택시 상당부분을 베이징 현대산으로 하도록 했다. 맨눈으로 봐도 이만저만한 특혜가 아니다.

이제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길의 끝이 어렵듯하게나마 보이지 않는가. 생명 대양이 살아있으면서도 함께 더불어 잘사는 꿈같은 세상이다. 하지만 꿈이 아니다. 지구상에는 이런 꿈을 현실로 만들어 행복하게 잘사는 나라들이 여럿 있다.

"거친 숲길을 지나가지 않고는 활짝 핀 꽃밭을 구경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제 우리 광주가 다시 거친 숲길을 헤쳐가려고 한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첫머리를 열었다. 이제부터는 시민이 주인공이다.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 '시민의 꿈'을 모아 '광주의 꿈'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꿈'으로 현실화시키기위해 만든 시민협업체가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다. 우리의 꿈이 이뤄져 우리의 삶이 넉넉해질 때, 광주는 당당해지고 '광주정신'은 우리를 삶속에서 더욱더 살아서 빛을 발하지 않겠는가. 150만 광주시민의 열정과 성원, 참여가 절실한 때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지만 꼭 가야할 길이다.

社說

한빛원전 방사성폐기물 육상 이송 안 된다

영광 한빛원전이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내년 초 전면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능력이 한계에 달했음에도 해상 이송을 둘러싸고 여민들과 보상 등을 놓고 있어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원전당국이 발전 중단을 피하기 위해 '육상 이송'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무모한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빛원전과 원자력환경공단은 올해 안에 방사성 폐기물 저장용량 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달 중 선박을 이용해 1000드럼을 경주 방사성 폐기물처리장으로 이송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어업손실 등을 우려한 영광지역 어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함으로써 올해 안에 이송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다급한 한빛원전 측은 원자력환경

공단 측에 육상 이송 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공단 측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육상 이송은 전례가 없는 일로 안전성 또한 검증된 바 없다. 이송 등을 놓고 있어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원전당국이 발전 중단을 피하기 위해 '육상 이송'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무모한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빛원전과 원자력환경공단은 올해 안에 방사성 폐기물 저장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달 중 선박을 이용해 1000드럼을 경주 방사성 폐기물처리장으로 이송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어업손실 등을 우려한 영광지역 어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함으로써 올해 안에 이송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다급한 한빛원전 측은 원자력환경

광주 자동차밸리 시동, 이제 정부가 나설 때

광주시가 민선 6기 최대 역점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를 위한 자동차산업밸리조성사업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한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는 자동차 조성사업 추진 전략 자료와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을 지역 유치활동 지원, 국비 확보를 위한 대정부 건의 등을 하게 된다.

자동차산업밸리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빛그린 국가산단과 진곡산단 등 360만㎡에 총 사업비 8347억 원을 투입해 자동차 생산도시 구축에 필요한 완성차·부품기업 유치, 자동차 분야 생산성 향상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시가 추진위까지 구성해가며 열을 올리는 것은 지역에서의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

하지만 참여가 필수적인 현대차그룹이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는데다 정부의 의지마저 반박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대차그룹은 8일 알리자료를

내고 "추진위원회와 논의나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또 윤장현 광주시장이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성과되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지지부진했다. 광주 자동차산업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주 지역사업발전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여부도 한 달 이상 미뤄져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광주의 성장 동력산업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정부가 적극 나서 성사시켜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광주 자동차산업을 지역사업 발전계획에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도 정부와 현대기아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산업 유치에 총력을 쏟아 할 것이다.

無等鼓

유년시절을 보낸 사골집 주변에는 유독 토종 감나무가 많았다.

검은 밤점이 있는 먹시를 비롯해 납작한 반시, 뽕죽한 고추감, 왕구슬만한 톨감(톨감) 등 다양했다. 또 수시(수수) 감, 호박감으로 부르는 감도 있었다. 그 가운데 먹시나무가 가장 많았다. 개인적으로 흥시로는 먹시, 겨우내 두고 먹기에는 고추감, 가지재 껍이 곁어두는 주저리음으로는 톨감이 최고였다.

감나무는 대접받는 지리에 서있지 않았다. 집 경계나 밭 주변, 산비탈 외진 곳에 있었다.

토종감 먹시

감꽃은 군것질거리가 드문 산골마을 아이들의 먹거리이기도 했다. 여자아이들은 꽃받치나 목걸이를 만들기도 했다.

상강(霜降)과 입동(立冬) 무렵, 들녘 가을걷이가 끝난 후에는 감 따기 작업으로 이어졌다. 나무에 직접 올라 손으로 따거나, 간짓대로 일일이 잘 익은 감을 골라 따다. 손이 닿지 않는 나무 꼭대기 몇몇 감들은 굶주린 새들을 위한 까치밥으로 남겼다.

마을에서는 땀을 흘려내거나 꽃감 봉오를 따내 감을 옮겨내거나 꽃감을 따고 위상이 제 지리를 잡았으면 싶다. 한 유기에 감을 넣고 적당량의 소금을

넣어 불을 지핀 아랫목에 이불로 덮은 채 하루 정도 지나면 신통하게도 땀의 땀은 맛이 없어졌다. 겨울을 재촉하는 햇살이 집집 처마마다 내걸린 주황빛 감이 완성됐다.

하지만 세월이 변해 젊은 사람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마을에서는 감을 따지 않는 해가 많았다. 삭막해진 마을 분위기 속에 이웃집과 경계에 자리했던 늙은 먹시나무는 잘랐다. 대신 마당이나 담장가에 다시 심는 것은

봉감이나 단감 나무 뿐이었다. 전대만던 토종감 먹시가 다시 주목받

고 있다. '정음 먹시감식초가 최근 '맛의 방주'(Ark of Taste) 목록에 2000번째로 등재됐다. 비영리 국제기구인 국제 슬로푸드 생명다양성재단은 지난 1996년부터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본떠 소멸 위기에 놓인 토종 종자와 음식을 복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맛의 방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단체를 계기로 단감과 대방 일색인 시장에서 앞으로 토종 감의 가치와 위상이 제 자리를 잡았으면 싶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법조칼럼



김지현 변호사

휴대용 재떨이 사용을 생활화하자

튀겨 담배꽂이를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1년 도쿄 한 거리에서 행인이 피우던 담배불통에 어린이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해 길거리 흡연금지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흡연자들은 아마도 아무런 생각없이 거의 습관적으로 담배꽂이를 던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배꽂이 무단투기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흡연자들이 이와 같이 담배꽂이를 아무 곳이나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단속을 당해도 '재수없게 걸렸네'라고 생각하며 버리는데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배꽂이 무단투기로 단속된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검색해 보니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왜 나만 단속하느냐, 거리에 담배꽂이를 버릴 쓰레기통이나 만들어 놓고 단속해라는 식의 글이 많았습니다. 다시는 길거리에 담배꽂이를 버리지 말아야겠다는 다짐보다는 다시는 단속당하지 않게 조심하자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담배꽂이 무단투기는 엄연히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담배꽂이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 운전 중 차밖 밖으로 담배꽂이를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여 더 엄하게 처벌됩니다.

담배꽂이 무단투기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법행위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담배꽂이 무단투기자들에게는 이러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식강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은 상습적인 무단투기자들에게는 소구에 경엄기입니다. 결국에는 집중적이고 꾸준한 단속으로 담배꽂이 무단투기가 범법행위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단속인력의 부족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담배꽂이 무단투기 장면을 찍거나 자동차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와 전국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제공하는 '생활불편 스마트

폰 신고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담배꽂이 무단투기자들의 하소연은 길거리에서 담배꽂이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휴대용 재떨이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는 담배꽂이 무단투기자를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휴대용 재떨이를 나눠주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단속만이 아닌 예방을 촉진하는 좋은 예입니다. 일본의 경우 흡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용 재떨이를 가지고 다니고 있으며, 유명한 모 자동차 회사의 연구소 흡연실에는 재떨이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개인마다 휴대용 재떨이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흡연자들이 휴대용 재떨이 사용을 생활화하게 된다면 무의식적으로 담배꽂이를 버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휴대용 재떨이 사용을 생활화 하기 위해 담배제조회사에서 휴대용 재떨이를 무상제공하는 캠페인을 벌여 준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p>光州日報 The Kwangju Ilbo</p> <p>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p>	
<p>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p>	
<p>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p>	
<p>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p> <p>편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체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p> <p>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p> <p>(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p> <p>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p> <p>(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p>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p> <p>광 고 매 체 팀 227-9600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p> <p>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p> <p>프 로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p> <p>※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